

A-6 조직유도재생술의 초기치유에서의 0.1% 클로르헥시딘과 0.2% 클로르헥시딘의 효과 비교

이정연*, 한수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조직유도재생술의 초기치유기간중의 클로르헥시딘 양치는 일반화되어 있다. 0.1% 클로르헥시딘과 0.2% 클로르헥시딘은 상용되어지는 농도의 양치액으로 이 두 양치액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성인형 치주염에 이환되어진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석제거술,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고 한 환자당 한 부위씩 2급 또는 3급의 치근이개부 병변을 보이는 하악대구치에 차폐막(Gore-Tex; expanded PolyTetraFluoroEthylene)을 통법에 따라 위치시켰다. 10명의 환자에게는 0.1% 클로르헥시딘을, 10명의 환자에게는 0.2% 클로르헥시딘을, 다른 10명의 환자에게는 양치액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술후 5일간은 항생제(Augmentin; amoxicillin clavulanate)을 복용하도록 한다. 4주나 6주 후에 차폐막을 제거하고 주사전자현미경, 혐기성 세균배양을 통해 세균감염 정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세경우에서 모두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혐기성 세균배양시에는 양치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0.1%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한 경우나 0.2%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P.gingivalis*, *P.intermedia*, *A. actinomycetemcomitans*를 인지한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면 조직유도재생술 시의 클로르헥시딘의 양치는 양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효과적이거나, 두 가지 양치액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